

권기형 중국 안동권씨 후손 시조 태사공 추향제 참제

권기형(權奇衡, 추밀공과 36世)씨가 부인 유옥화씨와 시조 태사공 및 남중공 추향제에 참석했다.

권기형씨는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나 현재 하북성 석가장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권오창, 權五昌)의 고향은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이다. 할아버지(권영하權寧夏, 34世)는 4남매를 데리고 중국 만주로 건너갔다. 그때가 여러 가지 정황상 아버지 나이 14살 이후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중국에 도착한 지 3~4년 만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장남이다 보니 동생들을 돌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런 가족의 사연으로 인해 권기형씨는 중국에서 태어났다. 17살 때 부모 곁을 떠나 농촌에서 일하고 군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했다. 전역 후에는 하북성 수출입관리국 상무국 부장까지 지내고 퇴직했다. 어릴 적부터 한국에 형제간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자라서 언젠가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다.

권오섭 문중공 사무국장으로부터 중국에서 권기형씨 부부가 한국을 방문해서 시조 태사공 추향제에 참석한다고 하니 인터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전화가 왔다. 추향제 당일 능동에서 만나 시조 태사공 묘소 참배 후 인터뷰를 하고 또 중국으로 돌아간 후 위챗(WeChat)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권행완 편집국장(이하 국장): 중국 청도에 안동 권씨 종친회가 있어서 권오덕 회장이 대중회를 방문한 적은 있는데 부부가 시조 묘소를 찾은 경우는 없었다. 너무 반갑다.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떠신지.

권기형: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 드렸다는 것이고, 아! 이제 내 뿌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몹시 기쁘다. 자신들도 잘 봤는데 다 조상 덕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국장: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되었나.

권기형: 2년 전에 거래처 지인으로로부터 안동 권씨 후손들이 제사지내는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지인이 좌윤공과 권혁선 위원이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근무하시는데 심사 때문에 중국에 자주 출장을 오신다. 그 분이 좌윤공과 파조 추향제와 시조 태사공 추향제를 알려주시면서 제사 지내는 사진을 보여 주었다. 저는 몇백 년 내려온 전통적인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 가면 아버지의 고향도 찾아볼 수 있고 족보도 찾을 수 있는나고 몰랐더니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다. 저희들은 그동안 아버지께서 사셨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선조님들의 묘는 어디에 있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방문 시간을 11월 14일 좌윤공과 시제에 맞춰다. 또 만약 흑시라도 거기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듣게 된다면 고향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방문기간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 달로 잡았다.

국장: 그런데 어떻게 음성을 가게 되었나.

권기형: 좌윤공과 추향제에 가니 무슨 파냐고 해서 모른다고 했다. 그저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과 옛날에 살았던 고향 주소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랬더니 좌윤공과 어르신들이 고향에 가면 흑시 아시는 분들 게실 거라고 하길래 고향까지 가게 되었다.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가 아버지 고향이다. 일단 음성군 소이면사무소에 가서 아버지 호적을 찾았다고 하니 한참 찾더니 전산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어떻게 알아볼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소이면장님께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셔서 갑산리에 사시는 권영우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덕분에 족보에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찾았고 그리고 청주 권오섭 아버지 찾았다고 또 방축리 권오



영명학당 제3회 졸업기념. 소화13년(1938년) 3월 20일. 세 번째 줄 맨 뒤쪽 오른쪽이 권기형씨 아버지(14살).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이 권오섭씨 아버지(12살). 앞줄 왼쪽은 일본인 교사. 오른쪽 두루마기 입은 사람은 한국인 선생



유옥화-권기형 부부

섭 아버지들 만나게 되었다.

국장: 이제 무슨 파 몇 세(世)인지는 알겠네요.

권기형: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갑산리 친척 집에 갔더니 추밀공과 36세라고 알려 주셔서 이제야 알았다. 족보에서 아버지 조상도 다 찾아보고 족보도 선물로 받았다. 어제 방축리에 가서 양촌 권근 선생과 문경공 묘소도 참배했다. 제가 문경공 후손이라고 했다. 너무 기쁘다. 아버지 고향 갑산리에 가서 도움 많이 받았다.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국장: 아버지 고향에 가니까 어땠나.

권기형: 잠을 못 잤다. 선조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역사를 알게 되었다. 권오섭 국장님 아버지와 저의 아버지하고 어릴 때 학당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1924년 생인데 살아계셨더라면 올해 100세이다. 권오섭 국장님 아버지와는 2살 차이라고 했다. 살아계셨을 때 4~5년 전에 왔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적 같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족

보도 찾고 하다 보니 꼭 누군가가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장: 시조 할아버지 추향제에 참석하니 어떤 생각이 드나.

권기형: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 핏줄이라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라고 하더니 초면이어도 절대로 남 같지 않다. 오늘 이 제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가지고 애쓰시고 선조님들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오늘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정신적인 전통문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싶다. 정말 감사하다. 이번이 와서 종친들의 아낌없는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땅도 친히 밟아보았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신 훌륭한 선조들께도 직접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음 양촌공 제사 때는 아들 손자와 같이 꼭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앞으로 조상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유옥화: 정말 대단하다. 마음에서 우리나라로 진심으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니 가문의 자랑스러움 안동 권씨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느껴진다. 묘소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갔고 역사가 멀리만 보였는데 너무 가까워 보인다.

국장: 그런데 한국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권기형씨가 어떻게 족보에 올라가 있나.

권기형: 족보에 올라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1990년경에는 인편을 통해서 고향까지 편지를 전했다고 한다. 권영숙(權寧肅)이라는 분이 인편으로 편지와 본인의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는데, 아버지도 그 사진을 보시면서 잘 인다고 하셨다고 한다. 우리 모르게 아버지는 그런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또 아버지께서 사셨던 마을에 편지 쓰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다. 인편으로 편지도 보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그런 편지를 하다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장: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잘한다.

권기형: 저는 어릴 적에 한글을 못 배웠다. 그런데 부인이 조선족이라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녔다. 부인 만나서 한글을 배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뿌리를 찾는 순간 권기형씨는 잠을 설치며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한다.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이 밀려와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인생에서 제일 뜻깊고 가슴 설레는 며칠을 보냈다. 권기형씨는 내년에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안동 권문의 본향과 아버지의 고향을 꼭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섭-권기형 부부(오른쪽)

정유재란 때 나라를 구한 명신(名臣) 충정공 권협 선생③

안동권씨 충정공 종회



충정공 권협 명정

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을 만나 선조의 어의를 전하면서 명나라 군사들에게 군량과 말 먹이를 공급하게 되었다.

왜장 가토오는 곡산(谷山) 안변(安邊)을 거쳐 6월 24일에는 영흥에 이르렀지만, 권협은 위험을 무릅쓰고 곡산으로 향했다. 왕명에 의하여 군량병을 모집할 목적으로 함경도 쪽으로 갔던 임해군(臨海君)과 강원도로 갔던 순화군(順和君)이 이곳으로 와서 두 왕자가 같이 있다는 전갈을 받았기 때문이다.

권협은 관서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7월에 만형 권수(權燾)의 비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전주부윤으로 부임하여 전주성을 견고하게 가다 듣고 지키던 중 병사한 것이었다. 10만 군사가 두서너 달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히 민간에서 추수할 때 거두거나 곡식을 사들여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권협은 우리나라 요충지로 내려가서 군량을 거두어들이는 임무를 맡았다.

선조 25년 1592년 12월 24일에 이어송이 제 목이 되어 구원병과 후속부대까지 합쳐 5만명의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왔다. 명나라 구원병이 압록강을 건너오자 군량미와 화약이 속속 실려 왔다. 이어송이 안주에 이르렀을 때 도체찰사의 자격으로 류성룡이 권협을 대동하고 그를 맞이했다. 류성룡의 명에 따라 권협은 평양의 지형과 군대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1593년(선조 26) 1월 6일, 류성룡의 안내를 받아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는 왜군을 이어송의 군대와 서산대사 휴정의 승병 1천7백 명이 연합하여 공격한지 하루 만에 되찾았다. 평양이 탈환되자 의주에 있던 선조의 어가는 1월 19일에 평양으로 돌아왔다.

선조는 1593년 4월 25일에 권협을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임명했다. 그 후 10월 1일에 왜군이 함양성에서 물러나자 선조의 어가가 함양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광주목사로 부임한 지 7개월만인 11월에 권협은 홍문관 교리로 발령을 받아 서울로 돌아왔다.

1594년(선조 27, 갑오) 2월 24일에 권협의 모친이 피난처인 강화에서 향년 84세로 졸하였다. 권협은 선조가 서울에 환도한 이후 삼남도체찰사부(三南都體察使府)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군무(軍務)를 전담감독(專擔督察)하며 삼남의 여러 곳을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다.

1597년(선조 30, 정유)에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났다. 선조는 총명함과 대담성(大膽性)이 필요한 고급사(告急使)로 권협을 임명하여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면 성사시킬 적임자로 확신했기 때문에 권협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물었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 경산종친회 시조 태사공 추향제 참석

권기 1095년 제468회 시조 태사공 추향제 봉행

권오현 이사장 춘양목 50그루 기증



권오현 고려레미콘 이사장이 춘양목(春陽木) 50그루를 대중회에 기증했다.

이에 대중회에서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능동제사 추원부와 남중공 단소 주위에 춘양목 50그루를 식재했다.

춘양목 50그루는 값으로 시가 약 3천여만에 상당하다. 춘양목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과 소천면 일대의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능동제사 주위에는 권오현 이사장이 기증한 춘양목 50그루와 앞서 권원수 이사가 기증한 이팝나무 60그루 총 110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권오현 이사장은 권영창 대중회 회장의 장남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야서구혼(野鼠求婚)

야서구혼(野鼠求婚)은 “두더지가 혼처를 구한다”는 뜻으로, 곧 두더지에게 가장 좋은 배필(配匹)은 두더지라는 뜻으며 동류(同類)는 동류(同類)끼리 가장 잘 어울린다는 뜻이다.

또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인간의 허영심(虛榮心)을 풍자(風刺)하는 데 쓰이거나,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상대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두더지(野鼠)가 그 자식을 위해 혼처를 구하려고

처음에는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이라 여겨 하늘에 구혼해 봅니다. 그런데 하늘이 말하기를 “내 비록 만물을 겸포하고 있지만 해와 달이 아니면 덕을 들어낼 방법이 없구려”

그래서 이번에는 두더지가 해와 달을 찾아 구혼하니 해와 달이 말하기를 “내 비록 널리 비추지만 구름이 드리우니 그것이 나보다 높다오”

다시 두더지가 구름을 찾아 구혼하니 구름이 말하기를 “내 비록 해와 달이 빛을 가려 버릴 수 있지만 바람에 흩어지니 바람이 나보다 높다오”

이에 두더지가 바람에 청혼하니 바람이 말하기를 “내 비록 구름은 흩어지게 하지만 발 사이에 있는

돌부치는 넘어뜨리지를 못하네오” 두더지는 하는 수 없이 돌부치에 구혼하니 돌부치는 말합니다.

“내 비록 바람은 두렵지 않으나 오직 두더지가 내 발밑을 밟고 들어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이 말에 두더지는 거만하게 말하지요. “천하에 높은 것은 나만 한 것이 없구나” 하였다고 하네오.

그러고는 마침내 두더지랑 결혼하였다고 하네오. 출처: 홍만종(洪萬宗, 1643년, 인조21~1725, 영조1)의 순오지(旬五志)에서 전 경주풍수지리학회 회장 심산壽山 권오록權五錄



시조 태사공 앞에서 경산종친회 참석자들